

*조선통신사 UNESCO 세계기록유산 한일공동등재를 기원합니다.

(재)부산문화재단 2017-022



조선통신사

JOSEON TONGSINSA JOURNAL · AUTUMN 2017 가을호

朝鮮
松菴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 051 744 7707 F. 051 744 7708 ~ 9
www.tongsinsa.com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舟次平野原... 平公... 請... 余... 播... 建... 喜... 星... 鯨... 年... 同... 唐... 海... 思... 吳... 鐘... 右...

1719년 정사 홍치중을 중심으로 하는 통신사의 종사관이었던 운산(雲山) 이명언이 통신사행의 귀로에 쓰시마 번주가 친분의 자료로 남기기 위해 시(詩)를 청하자 김화지(金花紙)에 써준 삼율(三律)의 일본풍물견문시이다.



CONTENTS

- 권두칼럼 04**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원하며
정세균 | 국회의장
- 성신교린 06** 조선통신사가 있는 21세기 새로운 한일관계
에지마 키요시 | 참의원의원, 조선통신사교류의원회 사무국 차장
- 기획특집 08**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이후의 과제
- 유네스코 등재를 위하여
양리운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학예연구사
- ZOOM IN 조선통신사 12** 조선판 『꽃보다 할배』, 한학역관 오대령의 일본 여행
정은영 |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강사
- 新조선통신사 16** '섬은 섬대로 다스리라' 쓰시마 시인의 도전
사사키 다쓰야 | 쓰시마시민극단 『이사리비』 좌장
- 문화프리즘 20** 영화 <GO>와 재일한인의 정체성
백태현 | 부산일보 논설실장
- 조선통신사 24時 22** 2017 한일네트워크 사업 소개
- 쓰시마 "이즈하라항 축제[對馬嚴原港祭り]"
- 시모노세키 "바칸 축제[下関馬関祭り]"
- 조선통신사 갤러리 27**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의 새로운 도약
박화진 | 부경대 사학과 교수

舟次平野原... 平公... 請... 余... 播... 建... 喜... 星... 鯨... 年... 同... 唐... 海... 思... 吳... 鐘... 右...

사 진 | 이명언필적(李明彦筆跡)
설 명 |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국 측 등재 신청 목록 중 문화교류의 기록물
사 행 년 | 1719~1720년
제 작 자 | 이명언(李明彦)
제작연대 | 1719
소 장 처 | 국사편찬위원회
사진제공 | 국사편찬위원회

■ 표지 설명

사 진 | 산수도(山水圖)
설 명 |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국 측 등재 신청 목록 중 문화 교류의 기록물
사 행 년 | 1811년
제 작 자 | 송암(松菴) 이시눌(李時訥)
제작연대 | 1811년
소 장 처 | 부산박물관
사진제공 | 부산박물관

발 행 일 2017. 10. 24. **발행인** 유종목
발 행 처 (재)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el 051. 744. 7707
편집위원 한태문, 김동철, 박화진, 이철호, 백태현
편집기획 문화유산팀 Tel 051. 744. 7707 www.tongsinsa.com
디자인·제작 효민디자이너 Tel 051. 807. 5100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 본지에 게재된 글이나 자료를 재사용하려면 (재)부산문화재단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조선통신사 저널은 (재)부산문화재단 및 조선통신사문화사업 홈페이지에서 웹진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2017년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원하며

朝鮮通信使記録物の 世界記録(記憶)遺産登録を願って



정세균 + 국회의장
丁世均 + 国会議長

信賴で通じるという意味で2世紀にかけて12回交流した朝鮮通信使は日韓両国に強い余韻、そして大切な遺産で残っている。通信使の旅は文録の役以後、崩れた信賴回復のきっかけであり過去ということで世界記録(記憶)遺産登録の理由は十分だと思う。世界記録(記憶)遺産登録へのみんなの努力がお互いを照らす宝玉になって日韓両国はもちろん全世界に明るい未来をもたらすだろうと確信する。

우리나라 사신이 통신사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파견된 역사는 조선 세종조를 넘어 고려 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통한다는 의미로 본격화된 조선통신사는 1607년부터 이뤄졌습니다. 두 세기에 걸친 열두 번의 교류는 한국과 일본에 강한 여운으로, 소중한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점을 인식한 한일 양국은 2016년 3월 1607년부터 1811년까지의 조선통신사 관련 외교기록 5건 51점, 여정 기록 65건 136점, 문화교류 기록 41건 146점 등 총 111건 333점(한국 63건 124점, 일본 48건 209점)에 대하여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했습니다. 과거 조선통신사의원연맹의 일원으로 활동했던 저로서는 큰 보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갈대 쓸쓸하고 물가 언덕 차가운데(蘆荻蕭蕭水岸寒) / 오사카 성 동쪽 가니 모두 평탄한 개울이라네(坂城東去盡平灘) / 물안개 핀 강 줄이은 산봉우리 새로이 맑게 개었으니(烟江疊嶂新晴色) / 설령 용면(龍眠)이라도 그림으로 읊기 어렵겠구나(縱有龍眠畫也難)”

1711년 조선통신사의 정사(正使)로 일본을 찾았던 조태억은 막부가 있던 에도(江戸)로 가는 길에 오사카 동쪽에서 요도가와[淀川] 쪽으로 향하며 이렇게 늦가을을 노래합니다. 송나라 화가 이공린(李公麟)이 살아 돌아와도 그려내기 어려울 정도의 절경이라는 조태억의 극찬은 한일 양국의 문학과 문화로 영원히 남았습니다.

이처럼 조선통신사는 단순한 외교사절 그 이상이었습니다. 필담으로 생각을 나눴던 유학(儒學)과 문학은 물론 회화와 음악, 기예, 의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에는 통신사가 주었던 춤이 축제로 남아

있고, 통신사가 방문하지 않은 지역에도 통신사를 소재로 한 인형이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조선통신사 수행 과정에서 얻은 고구마 종자는 식량이 궁했던 우리 민초들에게 요긴한 양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는 11월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등재될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신의 규모나 여정, 교류를 통해 남겨진 풍부한 기록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조선통신사의 여정 하나하나가 임진왜란 이후 무너졌던 양국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이자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조선통신사가 한일 양국에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사행(使行)길을 재현하는 축제는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성황리에 열리고 있으며, 관련 기록의 번역을 비롯한 연구활동도 활발히 전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통신사는 실로 한국과 일본의 오늘과 내일을 엮는 끈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한일 양국 간에는 역사적인 문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북핵 문제 등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안보문제 외에도 경제협력과 자연재해 같이 두 나라가 함께 대처해야 할 사안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해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선통신사의 여정, 일본에서의 열렬한 환대와 풍성하게 남은 문화유산을 인류사회와 공유하는 일은 단순히 한일 관계의 진일보를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지난날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롭게 발전한 역사는 전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뜻 깊은 과업을 도맡아 수행하고 계신 부산문화재단 유종목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일본 연지(緣地)연락협의회 마쓰바라 카즈유키[松原一征]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회도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마지막까지 힘을 보태겠습니다.

일본 시즈오카[静岡]의 세이켄지[清見寺]에는 1643년 조선통신사의 일원으로 일본을 방문했던 박안기가 쓴 “경요 세계(瓊瑤世界)”라는 현판이 있습니다. 조선과 일본이 아름다운 두 옥구슬처럼 세상을 밝히려는 의미입니다.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4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모두의 노력이 서로를 비추는 두 옥구슬이 되어 한일 양국은 물론 온 세상에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조선통신사가 있는 21세기 새로운 한일관계

朝鮮通信使が紡ぐ、 21世紀の新たな日韓関係



에지마 키요시 + 참의원의원
江島 潔 + 参議院議員
조선통신사교류위원회 사무국 차장
朝鮮通信使交流議員の会事務局次長

私は「朝鮮通信使交流議員の会」事務局次長という役職を通じて、日韓両国の架け橋役を自負している。今秋にも『朝鮮通信使』が世界遺産に登録されるのではないかとされており、首を長くしながら待ち望んでいるところにこの原稿を書く機会を頂いた。朝鮮通信使が往来した200年間が日韓両国にとって最も親密な関係を築いていたように、両国が再び「近くて近い国」となる日が遠からず必ず戻って来ることを切に願っている。

필자는 현재, 역사적 지리적으로 한국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일본 야마구치현(山口県)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참의원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이전에는 한국의 제2 도시인 부산광역시와 자매도시이기도 한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下関市)의 시장을 역임한 바 있다. 시장 재임 동안에는 예로부터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서 '바다의 관문' 역할을 담당해 온 시모노세키가, 다가오는 21세기에도 변함없이 양국의 문화 및 경제교류의 일본 측 창구 기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한 연장 선상에서 한일 양국의 교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맡은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조선통신사교류위원회'의 사무국 차장으로서, 한일 양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양국의 오랜 역사적 교류 사업 가운데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조선통신사'일 것이다. 올가을이면 '조선통신사'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것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던 와중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조선통신사'란, 한국의 조선시대이자 일본의 에도(江戸) 시대에 해당하는 시기에 일본으로 파견된 외교사절단을 말한다.

조선통신사는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약 200년 동안, 총 12번에 걸쳐 파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비행기로 한달음에 갈 수 있는 지금 시대와는 달리, 당시에는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건너야만 했다. 목숨을 건 굉장한 일이었음에도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통신사들의 커다란 용기가 있었기 때문인 동시에, 양국 간에 평화로운 시대가 오래도록 지속되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당시 조선통신사를 맞이하는 일본의 각 지역에서는 일행을 열렬히 환영하며,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호화로운 요리를 대접했다고 한다. 해외여행 같은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였기에, 외국에서 온 귀한 손님의 방문에 대단히 기뻐했음에 틀림없다. 게다가 남쪽 오랑캐, 코쟁이 등으로 부르며 두려워하던 유럽인들과는 달리,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피부색과 체격, 얼굴 생김새까지 비슷한 이웃 나라의 손님에게 친근감을 느끼며 환대했으리라는 것 또한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조선통신사의 방문은 총 12번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이 가운데 쓰시마(対馬)까지로 한정되었던 마지막 방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11번의 방문은 모두 혼슈(本州)의 상륙 지점이었던 '아카마가세키(赤間関)', 즉 현재의 시모노세키시를 지나

가게끔 되어 있었다. 역대의 통신사들은 파견 기록을 남겼다. 그 가운데 1711년의 여덟 번째 기록에는 '시모노세키에서 대접받은 음식이 가장 훌륭했다'라고 기술된 부분이 있는데, 시모노세키의 전 시장으로서 상당히 기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시모노세키와 조선통신사 사이에는 깊은 인연이 존재하기에, 필자가 시모노세키 시장으로 재임 중에 시의 대규모 여름 축제인 '바칸마쓰리(馬関まつり)' 행사의 일환으로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현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더불어, 이 행사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조선통신사 현장사업의 한국 측 최고 권위자인 강남주 선생님의 협력과 조언이 없었다면 실현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을 밝혀두며, 이 지면을 빌어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이후로도 이 행사는 지금까지 10년 이상 꾸준히 지속되면서, 시모노세키의 여름 대표 행사로 시민들 사이에 자리 잡게 되었다. 매년 재현되는 통신사 행렬은 취타대의 음악과 형형색색의 화려한 의상이 곁들여지면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행사로 시민들 사이에서도 대단히 인기가 높다. 조선통신사의 화려한 행렬을 구경하기 위해 모여든 시민들의 미소 띤 얼굴에서는 지루함을 찾아볼 수 없을뿐더러, 모두가 몇 백 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선조들과 어우러지고 있는 듯 보인다.

한편, 앞에서 언급했던 '시모노세키에서 대접받은 음식이 가장 훌륭했다'라는 평까지 들었던 요리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누구라도 흥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일 터이다. 그래서 나는 당시 제공되었던 요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전문가의 식견을 빌려 재현하는 데 도전해 보았다. 당시에 관련된 문헌이 다소 남아있기는 했으나, 현대의 요리책과 같이 '어떤 재료를 몇 그램 넣는다' 처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의 유추와 상상을 가미하여 최대한 요리를 재현해 보고자 노력했다.

완성된 '성찬'은 현대의 요리에 비하면 색채도 훨씬 소박한 데다가 가짓수도 적고, 맛도 단순했다. 그러나 당시에 서민들이 먹던 식사에 비하면,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대단히 호화로운 요리였음이 틀림없다.

오늘날 한일 양국은 극동아시아 자유주의 경제권을 이끌어 가는 리더로서 아시아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핵 개발의 위협에 맞서, 미국이 가세한 세 나라가 연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온 것 이상으로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야만 하는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일 관계는 결코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실정이며, 정치적 문제들로 인해 '가깝고도 먼 나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음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는 하지만, 한일 양국과 같이 공통의 문화를 공유하는 양국 관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일일이 예를 들자면 끝이 없겠지만, '고래 식용문화'도 그러한 예 중 하나일 것이다. 일본은 예로부터 연안 부근에서 고래잡이를 해온 지역이 전국 각지에 존재하며, 내가 사는 야마구치현의 나가토시(長門市)라는 도시에서도 매년 '고래 공양'을 올린다. 지금도 일본인에게 고래는 '떡거리'이다. 한국에서는 인류 사상 가장 오래된 포경 행위를 묘사했다고 전해지는 '반구대 암각화'의 소재지 울산광역시에서 매년 '고래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일본의 상업 포경을 부활시키고자 지속적으로 활동 중인 국회의원의 한 명으로서 나 또한 참가하고 있다. 고래를 그저 '구경거리' 정도로만 여기는 서구 국가와는 달리, 해양자원의 하나로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한일 양국이 연대하여 국제포경위원회에 대응하고 있다.

조선통신사가 왕래했던 20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일 양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친밀한 관계를 구축했듯이, 양국이 다시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되는 날이 머지않아 반드시 찾아오기를 바라며, 조선통신사가 세계기록유산으로서 등재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가을 저녁이다.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이후의 과제

5.18民主化運動記録物の世界記録遺産登録とその後の課題



양라윤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학예연구사
梁羅允 + 5.18民主化運動記録館 学芸研究士

5・18民主化運動(光州事態)記録物は、運動の勃発と鎮圧、その後の真相究明と補償の過程において作られたもので、民主主義と人権の観点からその価値が認められてユネスコ世界記録遺産に登録された。登録後は記録物の体系的な保存と管理に対する責任が伴い、記録物に関する市民の要求や関心が高まっただけに、記録物の公開と活用による文化的な共感と多角的なアプローチ方法を工夫し、取り組むべき責務が与えられる。

5월의 기록, 인류의 기록유산이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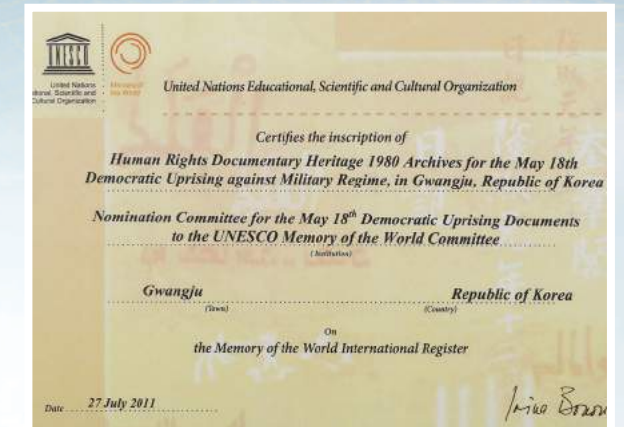
5·18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2000년 초반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세계문화유산이나 세계자연유산과 달리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었고, 특히나 한국현대사 분야의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한 상태였다. 5·18기록물의 역사성과 가치의 위상을 높일 수 있기에 추진해야 할 과제이지만, 자료의 방대함, 분산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등재추진 과정의 장기화 등 현실적 난제들이 과제였다. 그렇게 산발적인 논의만 이뤄지다가 2009년부터 5·18기록물의 등재가능성이 타진되면서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었고, 본격적으로 등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등재추진위원회에서는 가장 먼저 유네스코에 신청할 5·18기록물의 등록 대상 범위를 설정하고, 기존에 수집·보관 중인 기록물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먼저 5·18기념문화센터와 5·18사료편찬위원회에서 수집한 기록물을 중심으로 문헌자료, 구술자료,

영상자료로 분류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문헌자료는 국가기관(광주시청, 구청, 동사무소)이 작성한 문건 2,534건, 보상서류 1,466건, 재판자료(수사기록, 판결문) 632건, 군 자료 278건, 보도자료 19,516건, 5·18관련자 구술자료(778명), 영상자료 1,640건, 사진자료 4,448건이었다. 기존의 방대한 기록물을 분류하고 목록을 정리한 이후에는 미수집된 기록물을 수집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육필로 쓴 원본 또는 유일본’을 수소문하여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다. 무엇보다 30년 이상의 세월 동안 5·18의 경험을 후세에 알리고자 군사정권의 탄압과 감시를 피해가며 기록물을 수집·보존해온 분들의 숨은 노력과 소중한 기록물을 기증해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유네스코 등재 추진이 가능했다. 그렇게 수집된 1980년 5·18 당시를 담은 흑백필름, 시민들의 성명서, 일기장, 취재수첩 등 소중한 기록물들이 등재목록으로 정리되었고, 등재를 신청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민주화운동의 발발과 진압,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진로기록 및 보상 과정에서 시민, 정부, 국회, 미국정부 등에서 생산한 방대한 양의 기록물이다. 2009년부터 차근차근 준비한 결과 2011년 5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확정되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가 밝힌 5·18 기록물 등재 결정 이유는 “5·18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여타 동아시아 국가에도 영향을 미쳐 냉전구조가 종식되는 데 기여했다. 1980년대 이후 필리핀,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여러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5·18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전환점으로 널리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5월의 기록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민주화와 인권 신장에 널리 기여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기록유산 중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인권 관련 기록물임이 인정된 것이다. 국제적 수준에서 그 의미와 가치가 제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확인서



5·18기록관 수장고

대사 관련 기록물이 처음 등재되었다는 점에서 한국현대사 신장에도 널리 기여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는다.

5월의 기록유산의 보존과 관리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서 5·18기록물은 인류의 소중한 자산으로 미래세대에 전수될 수 있도록 보존하고 보호해야 한다. 해당 기록유산의 적절한 보존과 관리는 필수적이며, 당연한 것이다. 이에 광주시는 등재 결정과 더불어 종합적이고 방대한 분량의 5·18기록물을 보존·관리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설립을 추진하였다. 2012년 5·18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18 당시 금남로 현장을 지켜왔던 광주가톨릭센터를 매입하여 2015년 5월 13일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이 개관하였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크게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수장고와 사무실, 일반시민들에게 전시 및 교육을 하는 전시실과 다목적실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전시와 관련해서 상설전시실 1층과 2층에는 5·18민주화운동과 5월의 기록이 전시되고 있으며, 3층에는 5·18민주화운동의 세계사적 의의와 보편적 인권의 중요성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대표적인 세계기록유산 기록물이 전시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5·18 당시 기록된 다양한 기록물을 전시, 보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구 소련국가에서 일어난 인권탄압과 이에 대한 해당국가 국민들의 저항내용을 담은 세계기록유산 기록물을 전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 인권 역사 속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다시금 강조하고 나아가 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개념인 인권이 실현되어야 함을 기록관을 찾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분산되어 있는 방대한 분량의 기록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5·18기록관에서는 5·18기념문화센터 및 사료편찬위원회에서 수집한 5·18관련 기록물을 이관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단체, 연구소, 일반시민이 보관 중이던 기록물을 기증, 위탁 받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사본, 복본, DB형태로 기록물을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기록물의 보존·관리는 기록물의 유형에 따라 4개의 수장고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1수장고에는 국가기관이 작성한 문건, 보상서류, 재판문서, 군 자료 등 문헌자료, 2수장고에는 시민들이 생산한 성명서, 선언문, 취재수첩, 일기장, 3수장고에는 예술작품, 유물, 영점수장고에는 영상 및 필름자료가 보존되어 있다. 보관 서고는 보존 상자, 오동나무 서장에 담아 분류해서 보관하고 있으며, 보존 환경은 서고 온습도를 온도 20℃±2℃, 습도 55%±5%로 관리하며, 정기적인 환기와 소독을 통해 공기질과 수장고 방제 처리를 하고 있다. 기록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수장고는 일반인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기

록물관리사가 전담하여 수장고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5·18기록관에 수집된 기록물은 자체적으로 개발된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기록물에 대한 메타정보와 DB자료를 탑재하여 관리하게 된다. 기록물의 메타정보로는 기록물 명, 유형, 생산기관(생산자), 생산연도, 기증자 정보, 관리번호, 서가번호 등 기본적인 정보 이외에도 기록물에 대한 기본 정보값을 추가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된 기록물들은 기록관 홈페이지의 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하도록 연계되어 있다. 다만 5·18기록물 중 다수가 군 관련 기록물이거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웹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열람도 제한이 있다.

기록유산의 접근성 증진과 활용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를 통한 활용은 당연한 것이며, 정리되지 않은 기록물에 대한 활용가능성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기록물이 정리되었다고 해서 기록물에 대한 활용의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기록물의 수집, 정리, 보존과 이를 공개하고 활용하는 문제는 보다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의 기록물에 대한 접근은 '자료'의 의미가 강했다. 기록물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학문적 활용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접근성과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하지만 기록물은 접근하는 개념, 방향에 따라 다양한 가치를 드러낼 수 있으며, 기록물의 유기적 관계를 구현해낼 수 있는 복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록'으로서 머무르지 않고, 관리와 보존을 기반으로 공개와 확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공공분야, 시민사회에서 아카이브에 대한 요구와 인식이 강화되고, 기록물에 대한 이용문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기록물의 접근과 그 활용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맥락에서 기록유산의 새로운 가치발굴을 위한 창의적 접근은 쉽지 않다. 특히 5·18민주화운

동 기록물처럼 국가 권력이 국민의 존엄성을 유린하고 권리를 짓밟은 비극적 사실을 기록물로 전달한다는 것은 한계가 많다. 비극적 참상을 전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어린 학생들에게 과거 역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5·18기록물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전달하는 문제는 항상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5·18기록물 전시 초반에는 유네스코 등재기록물을 홍보하고 알리는 단순한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시민들이 작성한 성명서, 일기, 기자들의 취재수첩, 재판기록, 판결문, 행정문서, 사진과 영상기록들을 나열해서 보여주는 식이었다. 기록물과 같이 활용이 쉽지 않은 대상을 사람들에게 보다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전시의 다각적 접근을 어렵게 하였다.

기록유산이 담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활용 및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교육, 연구, 전시로 접근성을 확대해야 하는 고민이 과제로 주어졌다. 이에 5·18기록관에서는 문화적 자극과 공감의 문제에 주목하여 새로운 유형의 요구에 맞춰 기록물에 대한 다각적 활용방안에 주목하였다.

예컨대 잔혹한 인권침해의 역사적 접근을 위해 스토리텔링과 캐릭터를 제작하여 일반 시민과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 및 전시자료로 제공하였다. 5·18 당시 고등학생, 사진기자, 책방주인, 옆집 아주머니, 대학생 등 캐릭터들이 등장하여 각자가 겪은 5·18이야기를 들려주는 접근 방식이다. 무겁고 어두운 역사에 접근의 용이성을 높였다



는 평가이다. 또한 시민들과 학생들의 참여와 공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문화재청의 유네스코지킴이 학생들과 함께 5·18교구를 개발하거나 초등학교들의 현장학습에서 아이들이 기자가 되어 5·18사건을 취재하고 기록해보는 프로그램들은 일반적인 강의나 설명보다도 직접 참여하면서 알아가는 5·18의 역사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의 참여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5·18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성과까지 올릴 수 있는 기회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기록물이라는 것은 미술관의 예술품이나 도서관의 자료처럼 일반인들에게 접근하기 쉽지 않다. 특히나 세계기록유산으로서 기록물은 보존과 관리에 철저해야 하며, 동시에 문화적 공감과 접근의 용이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록물을 보존·관리하고 활용하는 문제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기록물의 보존·관리와 활용·확장의 문제는 더 이상 이분법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기록물 관리와 보존의 기술이 발달하고, 정보 및 전시 기술이 발달하여 얼마든지 새로운 접근과 활용의 방법이 가능하다. 기록물의 정보와 가치를 나누면 그 의미가 더 커질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기록물이 갖는 인류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라는 점에서 일차적 성과가 있겠지만, 등재 이후 기록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다각적인 접근 전략을 필요로 한다. 인류유산으로서 기록물의 가치와 의미를 알려야 하는 책무와 기록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요구도 시야에 넣어야 할 것이다. 그만큼 인류의 소중한 가치를 보존하고 그 가치를 후세대에 전달한다는 자세와 고민이 필요하겠다.



조선판 『꽃보다 할배』, 한학역관 오대령의 일본 여행

朝鮮版「花よりおじいさん」漢学訳官・吳大齡の日本旅行



정은영 +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강사
鄭恩永 +釜山大 国語国文学科 講師

漢学訳官(中国語通訳官)の吳大齡(オ・デリョン)は、癸未使行(1763年の朝鮮通信使派遣)の上通事(通訳官)として日本へ行ったが、当時すでに63歳だった。それまで13回も中国に行ってきた訳官の吳大齡は、様々な理由を挙げて使行を断ることができたはずだが、日本を体験できる良い機会と考えた。彼の期待に反して日本への使行は相次ぐ事件や事故で苦難の連続だったが、それでも彼は最善を尽くして日本と日本人の様々な面を見て、聞いて、記録しようとした。また、その過程を通して朝鮮でも中国でもない真の日本の姿に迫ることができた。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화두 중 하나는 바로 '여행'이다. 얼마나 자주 여행을 다니는가, 혹은 얼마나 많이 해외여행을 다녀보았는가 마치 성공과 행복의 척도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요즘, 그 시발점이 된 프로그램이 『꽃보다 할배』가 아닌가 싶다. '황혼의 배낭여행'을 콘셉트로 평균 연령 78세의 네 할배(?)가 대만과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던 프로그램은, 나이 지긋한 어른뿐만 아니라 꿈 많은 젊은이에게도 여행에 대한 로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이보다 250여 년 앞서 『꽃보다 할배』의 로망을 실현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어떨까? 바로 1763년 계미사행의 상통사(上通事) 오대령(吳大齡, 1701~?)의 이야기이다.

사행, 일본을 경험할 수 있는 즐거운 기회

오대령은 대대로 역관을 배출한 해주 오씨 출신으로 계미사행 이전 이미 13차례나 연행(燕行: 중국으로의 사행)을

다녀왔던 한학역관(漢學譯官)이었다.

정사께서 또 "지금 그대 나이가 어찌 되는가? 연경에는 몇 차례나 다녀왔는가?"라고 물으셨다. 내가 대답하기를, "나이는 곧 63세이고 연경에 열 차례, 삼양에는 두 차례, 봉성에는 한 차례 다녀왔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큰소리로 "대단하십니다. 사행을 많이 다니셨습니다."라고 하였다.

- 오대령, 『명사록』, 계미 11월 27일(경진)

수년 동안 중국 북경, 삼양, 봉성까지 다녀왔던 나이든 한학역관이 일본으로의 사행에 참여하니 다른 사행원역들의 관심 대상이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정사 조엄(趙暉)은 아침 문안을 온 오대령에게 이것저것 질문하며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다. 앞서 조엄은 오대령이 자신의 부친인 조상경(趙尙綱)을 수행하여 사은겸동지사(謝恩兼冬至使)



로 연경에 갔었던 사실을 기억하고는 자신과 오대령의 귀한 인연에 감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계미사행을 떠나던 그때 오대령의 나이는 이미 예수를 넘었었다. 또한 일본으로 떠나기 전 오대령은 모친의 병환 때문에 15년간이나 사행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었다. 그런 오대령이 통신사행에는 선뜻 나섰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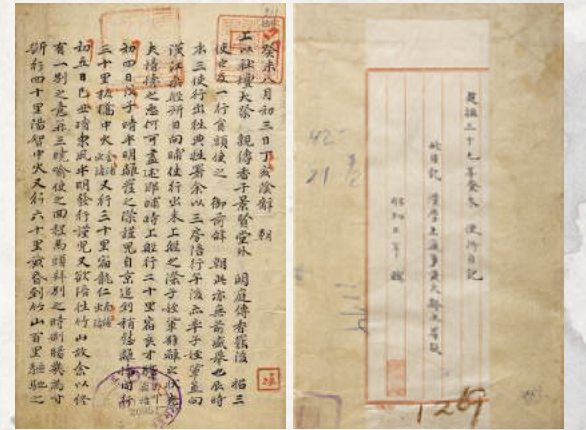
이번 소임을 대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사행을 가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미 왕실에서 정한 일을 깨리는 것은 의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나이가 60을 넘었으니 (사행 참여가) 면제되어 가지 않아도 되오나 다른 것은 구애됨이 없습니다. 이미 중국을 보았고 지금 일본을 보게 되니 즐거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사람의 말을 물리치고 왔을 뿐입니다.

- 오대령, 『명사록』, 11월 29일(임오)

부사 이인배(李仁培)는 오대령이 많은 나이에 불구하고 사행에 나선 이유가 궁금했다. 실제 오대령은 이전처럼 노모의 병환을 이유로 들어 일본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인배는 오대령을 불러 사행에 참여한 이유를 직접적으로 물었다. 이에 오대령은 자신의 임무를 대신할 사람도 없을뿐더러 이미 내려진 왕명을 받들어야만 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그 대답의 끝에, 중국을 본 자신이 이번에 일본까지 보게 된 것은 '쾌사(快事)', 즉 즐거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오대령에게 통신사행은 일본을 경험할 수 있는 즐거운 기회였던 것이다.

거듭된 고난, 즐겁지만은 않은 사행 노정

그러나 오대령의 바람과 달리 일본으로의 사행 노정은 계속되는 사건, 사고로 고난의 연속이었다. 일본으



오대령의 『명사록』

로 떠나기도 전에 정사가 탈 배에 불이 나 선장이 교체되었고, 일본으로 향한 뱃길에서는 정사와 종사관이 탄 배의 치목이 꺾이고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함께 떠난 사행 원역들에게도 불상사가 계속되었다.

현자정(玄子定: 압물통사 현태심)의 병이 비록 조금 좋아졌다고 하나 깨끗하게 나은 것은 아니어서 밤에는 곡(哭)을 하기도 하고 혹은 헛소리를 하며 밤새도록 자지 않았다.

- 오대령, 『명사록』, 갑신 3월 23일(갑술)

압물통사(押物通事) 현태심이 일본에서 갑자기 광증(狂症)이 일어나 격리되었다. 국내에서부터 자신과 많은 시간을 함께 했던 현태심이 이역에서 병에 걸리자 오대령의 걱정과 탄식은 끊이지 않았다. 특히 현태심이 자신과 동갑인 수역 현태익의 동생이었기에 그 애절함과 안타까움은 더 컸었다. 그리고 뒤이어 오대령을 비롯한 계미통신사행원들은 도훈도 최천종(崔天宗)이 살해되는 아픔을 겪어야 하였다. 이에 삼 사신의 진노가 극에 달했고 일본인들을 제대로 신척하지 못한 역관들에게 그 불뚱이 튀게 되었다. 그래서 역관 모두에게 유독 힘든 사행이었다.



한학역관 오대령(吳大齡) 초상

일본으로의 사행은 오대령 개인에게도 결코 만만치 않은 여행길이었다. 우선은 노쇠한 몸이 풍토가 다른 이국으로의 여행을 견디지 못했다. 지병이었던 치질(痔疾)이 안 그래도 힘든 몸을 더 괴롭혔고 대판(大坂) 도착 이후 계속해서 말을 타고 이동해야 했던 것도 노구로는 감당하지 못할 고통이었다. 오대령이 어쩌나 힘들어 했던지 꿈꿨는데 그의 신음소리에 호응하던 일본인이 특별히 견여(肩輿)를 탈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정도였다. 그러나 그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생각과는 달리 일본을 구경할 수 있는 자유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에도[江戸]의 관사 안에 칩거하며 출입하는 자유를 얻지 못했다. 또 배 멀미로 심하게 앓고는 음식 먹는 것이 편하지 않았다.

- 오대령, 『명사록』, 갑신 3월 11일(입술)

일본과의 외교적 실무를 담당했던 왜학역관(倭學譯官)에 비해 한학역관(漢學譯官)이었던 오대령에게는 별다른 직임이 주어지지 않았다. 일본 측이 보낸 예물 단자를 살펴보거나 중국어를 아는 일본인을 만나 시문을 주고받는

것이 다였는데, 그마저도 가끔이었다. 어쩌면 오대령은 자신에게는 다른 사행원에 비해 많은 시간적 여유가 주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일본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 들을 수 있다고 여겨 사행에 흔쾌히 나섰던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자유롭게 일본을 즐기겠다는 오대령의 희망은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조금씩 사그라져 갔다.

사행 노정에서 본 일본

비록 따로 시간을 내어 일본 곳곳을 돌아볼 수는 없었지만 오대령은 이동을 하거나 일본 측에 예단을 전하면서 보고 들었던 바를 빠짐없이 기록하여 『명사록』이라는 통신사행록을 남겼다. 특히 오대령은 연행을 했던 경험을 심분 활용하여 일본의 다양한 모습을 중국과 비교하여 기술하였다.

마도 태수가 삼사 및 상하원역을 청하여 연회를 베풀었는데 전례다. 무릇 모든 등물 및 예절이 전일과 더불어 대마도에서의 하선연과 다름이 없이 같았고 사치스럽고 화려하기가 공연(公宴)과 견줄 만했다. 끝난 후에 잡회를 펼치니 무릇 잡회를 하는 도구 및 원숭이 놀이, 환술(마술)이 거의 연경(燕京: 북경)을 방불케 하며 죽히 즐겁게 볼 만 했다. 다만 공작이 없어 마음에 차지 않았다.

- 오대령, 『명사록』, 갑신 3월 5일(병진)

이미 전대의 사행원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 일본의 변화함과 물산의 풍부함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이를 실제 자신의 눈으로 본다는 점은 오대령에게 분명 다른 차원의 자극이 되었을 것이다. 오대령은 강호(江戶) 화려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으며, 중국 연경에 필적할 만하다고 평하였다. 또 대마도 태수가 벌인 연회에서 본 잡회 역시 연경을 방불케 한다고 하였다. 즉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또 조

신의 지식인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중국의 연경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일본의 발전상을 논했던 것이다.

한편 오대령이 일본에서 관심 깊게 보았던 대상은 일본의 일상적 모습이었다. 자신이 갈 수 있는 지역이 사행 노정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대령은 사행 행렬이 지나는 연로와 관소 주변, 자신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찾았던 일본의 가옥 등을 더 자세히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예단을 전하여 주려던 차 상상관 현중거(玄仲舉: 현대익), 이성임(李聖任: 이명운)과 함께 삼중실의 집으로 갔다. 관문에서 서남으로 구불구불하게 길이 이어지니 갈 때가 곧 꽃이 피는 시절이라 향기로운 꽃이 아름다움을 다투고 어여쁜 피꼬리는 맑은 소리로 지저귀며 여린 잎사귀는 생생히 빛나며 봄기운이 바야흐로 짙어지니 나그네 수심을 까맣게 잊을 수 있었다. (중략) 초목이 무성한 숲에 단장한 집이 어렵듯 보이니 마치 그림과 같았다. 두 개의 성문을 들어가 중실의 집에 이르니 단장한 문은 웅장하고 컸으며 아름다웠는데 겹치게 새로 만들었다. 금으로 된 조각이 펼쳐져 있고 채색 주렴, 비단 휘장은 금색 띠로 말려있으니 사치스럽고 화려하기가 관백(關白)의 궁보다 나았다.

- 오대령, 『명사록』, 갑신 3월 3일(갑인)

일본의 삼중실에 예단을 전달하러 간 오대령은 일본의 자연 풍광을 마주하고는 객수(客愁)를 잊을 수 있었다. 또한 그는 사행 노정에서 본, 조선과는 다른 일본의 자연 풍광에서 별세계에 있다는 기쁨도 느꼈다. 하지만 그가 일본의 자연을 단순히 즐기는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한 산수와 지형을 통해 그저 오랑캐라고 치부되었던 일본인의 심성을 이해하고, 통신사 접대를 맡은 일본 각 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일본의 정결한 가옥과 잘 다듬어진 정원을 보며 조선, 또 중국과는 다른 일본의 문화를 알고자 하였다.

오대령은 『명사록』을 저술하며 일기의 말미에 추록과 별록을 덧붙여 자신의 일본 경험과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일본정보를 기록하였다. 비록 일본으로 사행을 떠나며 품었던 자유로운 여행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조선과 중국을 오가며 다양한 경험을 했던 노련한 한학역관의 눈으로 자신이 바라본 일본을 정리한 것이다. 늙고 병든 몸에 풍월 속에서 노닐 생각만으로 떠난 사행이었기에 제대로 일본을 보았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오대령의 겸사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더 일본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섬은 섬대로 다스리라' 쓰시마 시민의 도전

「島は島なりに治めよ」対馬市民の挑戦

演劇を通じて地域の活性化を目指すという理念の元、対馬の歴史や偉人などを演劇にする活動を行っている、市民劇団「漁火」は2009年12月に発足した。今から400年前の、朝鮮との戦乱から国交回復交渉までの激動の対馬を描いたミュージカル「対馬物語」は、対馬のみならず日本各地や韓国で上演し、たくさんの方に感動を届け続けている。



사사키 다쓰야 + 쓰시마시민극단 『이사리비』 회장
 佐々木 達也 + 対馬市民劇団「漁火」座長

박수갈채가 쏟아지던 공연장

2012년 5월, 일본의 쓰시마 시민 극단이 바다 건너 부산시 영도구에서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첫 해외 공연이자 일본어로 진행되는 배우들의 연기와 시대적 배경을 한국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쓰시마의 정신이 제대로 전해질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불안 속에서 약 2시간에 걸친 무대를 마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관객들의 커다란 환호성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시대와 국경을 초월한 순간이었습니다.

문화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쓰시마 시민 극단은 2009년 12월에 발족했습니다. 문화를 통해 우리의 힘으로 쓰시마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극단명인 '이사리비[漁火]'는 야간에 고기를 잡는 배가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해 밝히는 집어등을 가리키는 말로, 쓰시마 주변의 바다에서는 거의 매일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이사리비'의 불빛은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서 자신을 과시하는 듯 보이기도 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연극을 통해서 이러한 '이사리비'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았습니다.

우리 시민 극단은 쓰시마를 테마로 연기합니다. 극단의 주된 활

동은 연극을 통해 쓰시마의 역사 및 문화유산, 위인들의 업적을 많은 이에게 알림으로써 쓰시마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본 규슈[九州]지역과 대륙에 관련된 유물이 함께 출토되는 등 예로부터 쓰시마는 사람들의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때로는 대륙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거점으로, 때로는 교역과 방위의 최전선으로 활용되었으며 그로 인한 자취가 다수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다행스럽게도 수백 년 동안 전쟁에 휘말리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당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자료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쓰시마에는 오랜 역사를 통해 생겨난 수많은 '비화'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일본 및 세계의 역사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고문서나 역사서, 또는 전승된 유산 속에 깊숙이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비화를 세상에 알리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우리 시민 극단에 부여된 사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1년 2월, 쓰시마 시민 극단은 쓰시마의 한 지역에 전해지는 전승 유산을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고 이 공연을 통해 데뷔했습니다.



국교 회복을 테마로 하는 이야기의 탄생

쓰시마 시민 극단의 설립과 때를 같이하여 일본 전국(戦国)시대 말기에서 에도[江戸]시대 초기까지의 쓰시마를 테마로 한 뮤지컬 작품이 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만들어 낸 것은 각본가 제임스 미키[三木 徹]로 일본을 대표하는 역사 드라마 시리즈를 다수 만들어냈으며, 그 밖에도 다수의 드라마 및 무대 작품을 제작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 각본가 중 한 명입니다. 또한, 한일 양국을 무대로 하는 작품의 제작에도 참여하고 있어, 조선통신사를 무대로 하는 이야기 《제비》에서는 각본 및 연출을 담당했습니다. 《제비》는 일본 굴지의 규모를 자랑하는 극단 '와라비좌[わらび座]'가 319회에 걸쳐 공연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공연되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제임스 미키 씨는 작품을 집필하기 위해 쓰시마를 방문했을 당시 '쓰시마는 한국과 일본의 조정자로서 존재해야 했다. 이점에 초점을 맞춰 드라마를 만들고 싶다. 이 작품을 맡게 되어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구체화하여 뮤지컬 《쓰시마 이야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쓰시마, 그리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 뮤지컬 《쓰시마 이야기》

서기 1590년, 약관 22세의 쓰시마 도주 소 요시토시[宗義]는 규슈의 다이묘[大名] 고니시 유키나카[小西行長]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고니시의 딸은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천주교 세례를 받은 15살의 공주가 시대의 권력자 도요토미 히데요



뮤지컬 '쓰시마 이야기' 도쿄공연

시[豊臣秀吉]의 명령에 따라 쓰시마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장면으로 뮤지컬은 시작됩니다.

당시의 쓰시마는 다양한 난관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며 조선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영토 대부분이 산이었던 쓰시마에 교역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천하를 통일하고 대륙으로 세력을 넓혀가고자 했던 히데요시는 조선에 대하여 종주국인 명나라를 정벌하는 선도 역할을 맡도록 요구하였고, 이를 협상하도록 쓰시마에 명령했습니다. 이와 같은 요구를 거부하는 조선과 히데요시 사이에서 쓰시마는 고뇌를 거듭했습니다.

이토록 긴장된 상황 속에서 아내로 맞이하게 된 마리아를 향해 요시토시는 그녀가 쓰시마의 불청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경고하지만, 쓰시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리아의 진심을 느낀 요시토시가 그녀를 받아들인다면 두 사람은 정식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러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쓰시마는 조선과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고, 두 번에 걸친 전쟁은 쓰시마에도 깊은 상흔을 남깁니다. 조선으로 향하는 중계지였던 쓰시마에서는 수많은 백성이 굶주림에 시달린 끝에 희생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사랑하는 남편의 안위 뿐만 아니라, 쓰시마와 조선의 백성들을 걱정하며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5년에 걸친 전란은 막을 내렸지만, 쓰시마는 살아야 할 수단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히데요시가 죽은 뒤 세력을 키운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는 조선과의 국

교회복을 위해 쓰시마가 교섭을 진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국교회복은 쓰시마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나, 일본에 굳게 마음을 담아 버린 조선과의 평화 협상은 엄청난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쓰시마에서는 몇 번이나 조선에 사신을 보냈지만, 그들 중 살아서 쓰시마에 돌아온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일본 내에서도 쓰시마는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1600년, 천하의 주인을 결정하는 싸움으로 불리는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쓰시마는 소 요시토시의 장인인 고니시 유키나카와 함께 서군으로 참전하여 패배하고 맙니다.

쓰시마는 궁지에 몰렸지만, 조선과의 교섭에 쓰시마를 이용하고자 했던 이야아스는 적으로 돌아섰던 것에 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군의 중심적인 무장의 경우 그 가족까지 처형하도록 엄청난 처벌이 내려졌기 때문에, 서군의 대장이었던 고니시 유키나카는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요시토시는 쓰시마에 미치게 될 영향을 걱정하 나머지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와 이혼하고 아이와 함께 그녀를 나가사키[長崎]의 수도원으로 보냅니다.

이후로도 쓰시마는 국교회복을 위해 끈질기게 교섭을 시도했습니다. 전쟁 당시 일본에 끌려온 조선인을 모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등의 노력을 통해 조선과의 관계 구축에 힘썼으며, 그 결과 국교회복의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조선으로 보낼 국서의 내용을 놓고 고심하게 됩니다.



뮤지컬 "쓰시마 이야기" 도쿄공연

궁지에 몰린 요시토시는 이대로는 국교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쓰시마에서 국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조선으로 보냅니다. 만일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될 경우 목숨은 고사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토시는 선대의 유언인 '섬은 섬대로 다스리라'는 말을 가슴에 새긴 채 자신의 신념에 따라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을 희생한 요시토시의 행동이 열매를 맺어, 1607년 조선 측이 조선통신사(회답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를 파견하게 되고 쓰시마에서 극진히 대접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쓰시마를 떠나 에도[江戸]로 향하는 요시토시의 앞에 나가사키에 있어야 할 마리아가 나타나 요시토시의 지친 마음을 위로합니다.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두 사람은 흘러간 시간을 되돌리기라도 하듯 함께 노래하지만…….

선조들의 염원을 되살리다

완성된 각본은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연기하는 시민에게 이를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연출 및 작곡을 비롯하여 극단 '와라비 좌'의 제작 협력 속에 약 반년의 시간을 들여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대사를 외우는 데서부터 동작과 연기에 이르기까지 아찔할 정도로 많은 작업을 소화했습니다. 회원이나 학생 등 단원들의 직업과 연령도 다양했는데, 각자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짬을 내서 작품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뮤지컬 "쓰시마 이야기" 도쿄공연



뮤지컬 "쓰시마 이야기" 도쿄공연

이 작품에는 극단의 단원들뿐만 아니라 코러스 및 일본 무용, 일본의 전통 북 와다이코[和太鼓] 연주 등의 문화 활동을 펼치는 쓰시마 시민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평소 취미로 하던 활동에 쓰시마와 쓰시마의 역사를 알린다는 목적이 더해진 셈인데, 문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시민 극단의 이념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총 80명의 출연자가 만들어낸 쓰시마 이야기는 2011년 11월, 마지막 조선통신사가 쓰시마를 방문한 이래로 20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에 첫 공연의 막을 올렸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관객들은 '일본의 역사에 쓰시마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잘 알 수 있었다', '시민들이 열심히 공연에 몰두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다를 건너 무대

첫 공연을 성공리에 마치고 반년이 흐른 후 우리는 한국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쓰시마와 인연이 깊은 부산시 영도구에서 공연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역사가 길지 않은 극단에 해외 공연은 불안투성이이지만, 그중에서도 언어의 장벽은 가장 큰 불안 요소였습니다. 현지 스태프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대를 성공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걱정이 가우에 불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멋진 무대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한일 양국의 스태프가 손발을 맞춰 준비해 나갔고, 덕분에 무사히



쓰시마 시민극단 연습 모습

본 공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 일은 '선린우호(善隣友好)'라는 말을 직접 피부로 느끼게 된 기회였을 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쓰시마와 조선 사람들이 이토록 서로를 생각하면서 함께 살아왔음을 깨닫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비단 저뿐만 아니라 시민 극단과 관련된 모든 이들이 공통으로 느낀 부분이었기에 지금도 부산 공연은 가장 인상 깊은 공연으로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달하다

2011년에 시작된 뮤지컬 《쓰시마 이야기》는 그 후 쓰시마뿐만 아니라 일본 각지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도쿄 와세다[早稲田] 대학의 오쿠마[大隈] 강당에서 공연했으며, 지금까지 총 5,000명이 넘는 관객에게 쓰시마의 장대한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들로 구성된 시민 극단이 어떻게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쓰시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이도 직업도 지내온 시간도 제각기 다른 우리가 일상 속의 수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에게 쓰시마를 알리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무대를 만들어 가는 것, 그 자체가 커다란 감동을 자아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선조들의 뜻을 이어받아, 쓰시마가 담당해 온 평화 후호의 역사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지속해서 알리고, 이를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화 <GO>와 재일한인의 정체성

映画『GO』と在日韓国人のアイデンティティ

在日韓国人は太平洋戦争の前後に日本へ渡った1世から代を経るにつれ、民族や国レベルの集団的アイデンティティの境界を超えて日本で暮らしていることから、個人レベルの多元的アイデンティティを構築していく傾向がある。行定勳監督の映画『GO』(2001)はこのような傾向をよく表している。同作で在日3世の杉原が日本人女子生徒と育む恋は、民族性や国籍にとらわれず、自由な一人の人間としての実存的感覚と世界市民としての多元的アイデンティティに目覚める自分探しの道のりといえる。



백태현 + 부산일보 논설실장
白泰鉉 + 釜山日報 論說室長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한인(在日韓人)은 귀화자를 제외하면 약 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태평양 전쟁 전후에 일본으로 건너간 1세대를 거쳐 후대로 내려오면서 민족이나 국가적 차원의 집단적이고 고정적인 정체성의 경계를 넘어 실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개별적 차원의 다원적 정체성을 획득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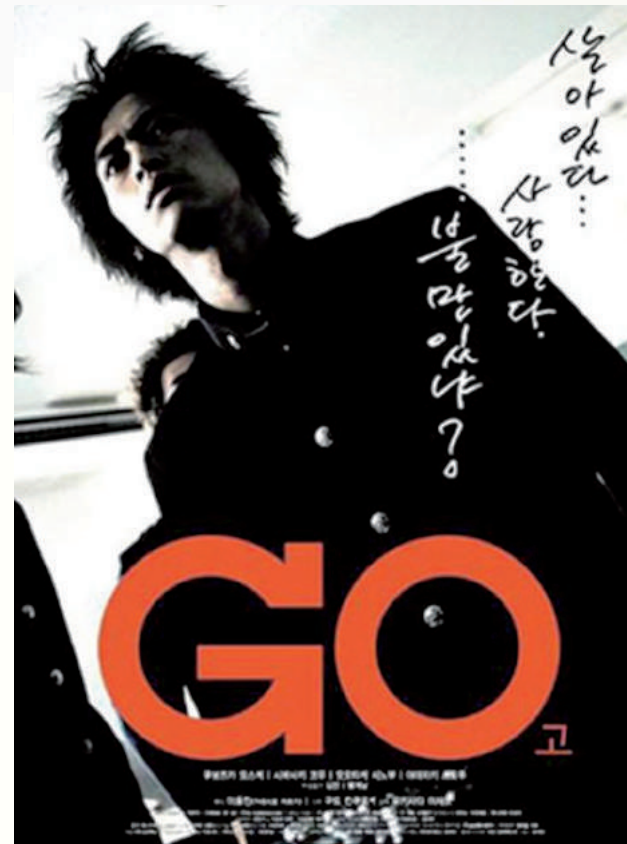
이런 경향을 잘 보여주는 재일한인 영화로 유키사다 이사오[行定勳] 감독의 <GO>(2001)를 들 수 있다. 이 영화에서 재일한인 3세 학생 스기하라[杉原]가 일본인 여학생 사쿠라이와 만들어 가는 사랑은 민족과 국가라는 집단적 정체성의 경계를 넘어서는 개별적 자유주의의 성향을 강하게 띤다.

이들의 자유로운 사랑은 앤소니 기든스가 말하는 '낭만적 사랑'이나 에릭 프롬의 '에로틱한 사랑'에 해당된다. 낭

만적 사랑에 빠진 개인들에게 그 사랑의 대상은 그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집단적 정체성의 구애를 받지 않고 바로 그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

이 영화는 셰익스피어의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인 “이름이란 뭐지? 장미꽃은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아름다운 향기는 그대로인 걸”이란 장미꽃의 비유를 등장시켜 재일한인의 정체성이 변화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미꽃이 무엇이라 불리든 그 향기가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재일한인 역시 국적과 본명이 무엇이든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체라는 것이다.

통명(通名) 스기하라의 본명과 국적이 밝혀지면서 잠시 헤어졌던 두 사람은 사쿠라이의 요청으로 다시 만난다. 이때 스기하라는 “나는 재일외국인도 외계인도 아니다. 나는 나다. 나조차도 버리겠다”고 외친다. 이 발언은 스기하라가 일본 땅에서 국적에 구애받지 않고 개별적 제3



의 존재로서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며, 필요하다면 이름조차 버리고 자유로운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일본에서 살아가야 하는 실천적 주체로서의 '생활인' 스기하라가 탄생한 것이다.

어느 한 쪽의 집단성에 속박되지 않는 실존적 감각이야말로 공존의 다문화 사회 개척에 필요한 개방성과 주체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겠다.

재일한인 3세 스기하라를 이루는 요소는 다양하다. 다소 폭력적이고 보수적인 아버지와 세대 갈등을 일으키는 한국 국적의 고등학생, 국적을 조선에서 한국으로 바꾼 뒤 조선학교를 나와 일본학교로 전학 가서 일본인 학생들과 싸움을 벌이는 반항아, 본명을 숨기고 통명을 사용하지만 민족적 정체성의 속박을 거부하는 자유주의자, 일본인 학생과 우정을 나누는 주변인 소년, 민족과 국적의

높은 담장을 넘어 일본인 소녀와 사랑을 쌓아가는 경계인. 이처럼 다양한 정체성들 가운데 꼭 집어 어느 하나가 스기하라의 진짜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 모든 정체성들의 총합이 스기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영화 <GO>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갈등하는 젊은 세대 재일한인의 이미지를 잘 형상화하고 있다. 영화는 21세기 일본 땅에서 살아가는 재일한인 청년이 민족이라는 집단적 정체성의 속박에서 벗어나 한 개인으로서의 개별적 정체성과 세계시민으로서의 다원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방향과 고뇌의 과정을 열린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다. 영화 속 스기하라는 민족과 세계시민 사이의 경계선상에서 끊임없이 정체성 탈주를 시도하는 동시에 이민족 소녀와 사랑을 가꾸어 나가는 '움직이는' 존재다.

다문화 사회의 혼종성과 세계시민의 다원적 정체성을 획득해 가는 재일한인의 미래지향적인 가치와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는 영화들이 더욱 양산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그런 작업들이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녹여주는 '신(新) 조선통신사'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기를 바란다.

2017 한일네트워크 사업 소개

쓰시마 “이즈하라항 축제[対馬嚴原港祭り]”



8월 5일(토)~6일(일) 양일간 쓰시마 “이즈하라 미나토 마쓰리”가 개최되었다. 올해는 축제 개최 전 태풍 “노루”의 영향으로 참석을 못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행사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씨가 맑아 성공리에 축제를 마칠 수 있었다. 부산문화재단과 쓰시마 간의 끈끈한 선린우호의 관계를 태풍도 막을 수 없었다.

부산문화재단에서 파견한 정신혜 무용단, 부산백양고등학교 취타대가 함께하였으며,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의 정사와 부산역에는 영화배우 박병은씨, 1643년 5회 중사관 신유 12대손 신화수 씨가 참여하였다.

부산 백양고등학교 취타대의 음악이 울려 퍼지고 300여명의 한일 참가자들의 행렬 재현이 시작되는 순간, 많은 쓰시마 현지 사람들과 한국 관광객들이 손을 흔들며 응원해주었다. 부산의 예술단과 행렬을 응원하는 쓰시마 시민들에게 8월의 무더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부산과 쓰시마의 남다른 우애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행렬 재현이 끝나는 지점에서 국서교환식이 진행되었으며 문화교류공연에는 정신혜 무용단이 참가하여 조선통신사의 의미와 정신을 되새겼다.

이즈하라항 축제 참가후기

조선통신사와 쓰시마



권진하 + 부산백양고등학교 취타대
權珍下 + 釜山白楊高校 吹打隊

우리 백양고등학교 취타대가 이번에 일본 대마도에서 진행되는 조선통신사 행렬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선생님께 듣고 너나 할 것 없이 들뜨고 기대하였다.

출발하기 일주일 전 부산 쪽으로 태풍이 올라온다는 뉴스가 나와 태풍경로에 따라 행사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아쉬웠지만 연습을 하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하늘이 이런 아쉬움을 알아줬던 것일까. 움직이지 않던 태풍경로가 출발 하루 전 안쪽으로 꺾여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들뜬 마음으로 출발하였다.

조선통신사 행렬 시작 전 행사복을 갖춰 입고 행사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다른 행사 복장을 입은 행사 참가자들이 도착하여 줄을 맞추고 있었다. 우리도 지시에 따라 줄을 맞추고 주변을 둘러보니 올 때는 긴장하여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인지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로 주변이 가득 차 있는 광경이 보였다.

행렬이 출발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연습해왔던 연주를 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흥겨운 연주를 들으며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었는데 격려의 박수를 쳐줄 뿐만 아니라 취타대라고 말도 해주고 사진도 많이 찍고 호응을 많이 해주었다. 행렬이 계속되고 풍경은 길거리에서 바닷가로 변해갔는데 사람들의 응원에 힘이 나서 그런지 끝날 때까지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고 힘이 들지도 않았다.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했다.

행렬이 끝나고 우리들은 물수건과 음료수를 받고 앞쪽의 큰 무대 앞에서 국서교환식이 시작되길 기다렸다. 기다리는 동안 방송국에서 카메라와 리포터가 와서 인터뷰도 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갔는데 TV에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에 신기하고 자랑스러웠다.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고 한국측 사람과 일본측 사람이 국서를 읽고 주고 받았는데 그 장면이 정말 멋있어 보였다. 행사가 끝나고 나서 긴장이 풀렸던 탓일까 몸과 마음이 힘들어 지쳤었지만 대마도에서 진행되었던 조선통신사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뿌듯하고 보람도 느꼈다. 이 행사가 계속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져 더욱 큰 행사가 되면 좋겠다.



2017 한일네트워크 사업 소개



시모노세키 “바칸 축제[下関馬関祭り]”

8월 19일(토)~20일(일), 40회를 맞는 시모노세키 “바칸 축제”에 부산광역시의회 백종현 의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부산문화재단 관계자, 부산지역 예술단(부산예술단, 부산태극취타대, 민요그룹 흥, 강미리 흙 무용단), 일반 참가자 등 100여 명이 참가하였다.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과 부산·시모노세키 문화교류 공연으로 시모노세키 도시를 매료시켰으며, 특히 조선통신사 관련 영상 전시 부스를 운영하여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공동등재 결과를 앞두고 추진 현황에 대해 시모노세키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매년 시모노세키 바칸 축제가 개최되는 시기에 태풍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지만 올해는 축제 시작일부터 끝날 때까지 화창하고 맑은 날씨에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오히려 8월의 무더위로 인해 양국의 참가자들이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데도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 응원해주며 행사 자체를 즐기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바칸축제 참가후기

조선통신사 행렬 시모노세키를 다녀와서 ‘두드리고(吹鼓手) 불면(細樂手) 열릴 것이다’



정성훈 + 부산태극취타대 대표
鄭聖勳 + 釜山太極吹打隊 代表

문화예술인의 삶과 열정으로 살아온 지 어언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국 전통음악을 알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은 ‘부산태극취타대’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인들과 국악을 전공한 선배들과 뜻을 모아 창단한 ‘부산태극취타대’도 이제 다섯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연습에 혼신을 다하였으며, 각종 축제와 공연에도 참가하여 전통문화 계승에 힘써왔습니다.

그런 어느 날 2016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에 참가해 달라는 요청은 저희 단원들의 열정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

습니다. 일본 시모노세키 행렬 재현 공연을 위해 단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준비하였으며, 공연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2017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초청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왕이 행차할 때 사용하는 근엄한 연주라 취타의 단순한 동작 및 타법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구성해서 좀 더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일까 고민하던 중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2017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참가 예술단체와 부산태극취

타대 단원이 함께 무대에 올라 좀 더 다이나믹하고 흥겨운 무대를 만들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강미리 홀 무용단, 민요그룹 흥, 부산예술단 단원들과 틈틈이 시간 맞춰 연습에 임했으나 대가족인 관계로 연습장소와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작품으로 하나 되어 점점 완성되어가는 작품에 희열을 느끼며 힘든 시간을 이겨나갔습니다.

명금일하~ 대취타~

드디어 부산의 전통예술인들의 합동공연이 일본 시모노세키 무대에 최초로 오르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인원과 다양한 퍼포먼스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 리허설이 진행되고, 서로 격려와 화합된 마음으로 본 공연 무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환호, 갈채는 그 동안의 힘든 시간들

을 끌어안으며 전통문화 예술인의 자긍심을 한껏 부풀리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두드리고(吹鼓手) 불면(細樂手) 열릴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 ‘부산태극취타대의 두드림은 이 세상을 여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라는 자부심으로 오늘도 내일도 두드리며 볼 것입니다.

일본 천지를 열광시킨 한국인의 뜨거운 심장이 용광로처럼 달아올라 저마다의 혼(魂)으로 각인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조선통신사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공동등재를 기원하며, 한국의 문화사절단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신 부산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